



진안삼의 유래

진안인삼의 유래

전라도 화순군 동북면 유천리에서 최씨라는 여자가 산신(山神)의 계시로 종자를 얻어 재배하여 이를 전파 하였다는 설이 우리나라 최초로 인삼 재배를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중경지](中京誌 : 김창강찬(金滄江撰))토산물항에 기재되었고 전북진안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록상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부터 370여년전 용담군 주천면 대불리(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진안군에 통합됨)에서 도인(道人)이 재배하기 시작하여 차츰 주변에 심기 시작하였다는 전설이 한국인삼사(1980년발행) 및 인삼계(1976년 창간호)에 기록 되고 있으며, 1935년에 진안군 용담면에 용담삼업조합이 설립되어 관할구역은 군내, 용담, 정천,주천, 안천, 동향의 인삼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자세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오직 구용담지(舊龍潭誌)에 삼업조합의 위치만 약간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후 1957년에 다시 설립되었으나 인접 금산삼업조합의 세(勢)에 밀려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설립 된지 2년만에 1959년 금산삼업조합에 통합되고 금산삼업조합 용담출장소 설치로 이 지역 삼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후 1962년 11월 16일 행정구역개편으로 금산이 충남으로 편입되자 전라남북도의 인삼재배농가(전국의 30%의 면적과 생산량을 보유) 지원 측면에서 삼업조합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1972년 12월 전북삼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73년 1월 가칭 사단법인 전북삼업조합 창립을 보게 되었다.



고려인삼이란?

고려인삼이란?

고려인삼이란 일찌기 세계에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의 대표적 생약이며 역대 왕조간 교역품 중 최상의 물품이었다.

2000년 전 중국 전한시대의 문헌에 고려인삼이 처음 언급된 이후 「신농본초경」, 「본초강목」 등 여러 동양의서에서 귀한 보신제 및 치료제로 기술되어 있으며 수 천년 동안 동양의학의 근본으로 취급되고 있다.

오랜 동안의 경험적 자료를 집대성한 한방의서에 의하면, 고려인삼은 지구력과 신체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혈청(血清) 조혈작용으로 생리적 균형 유지와 신체의 조화,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약제의 품계를 정함에 있어 고려삼을 군약(君藥), 상약(上藥)이라 하여 **약재(藥材) 중의 으뜸**으로 정하고 있다.

상약이란, 수명을 연장시키며 전혀 독이 없고 아무리 많이 복용하여도 인체에 해가 없는 약을 뜻한다.

인삼은 재배적지에 대한 선택성이 강한 작물로 기후, 토질 등 자연환경이 적당치 않은 곳에서는 생육이 아주 어렵다.

한국의 자연환경은 인삼 생육의 최적지로서 성분 및 약효에서 고려인삼과 세계 여러 종의 인삼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프랑스 약전(藥典)에는 세계 여러 종의 인삼 중 유일하게 **고려인삼만이 약재로 등기**되어 있고 홍콩 등지에서 다른 나라의 인삼이 고려인삼으로 원산지 표기되어 위법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고려인삼의 위상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하겠다.

현대 의학학계의 화두는 부작용 없는 생약 개발에 있다.

고려인삼은 그 연구개발의 중심에 있으며 성분 분석학적 성과 및 임상 연구 결과로 인삼의 주요 약리 성분과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세계인의 약용식물 및 건강식품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인삼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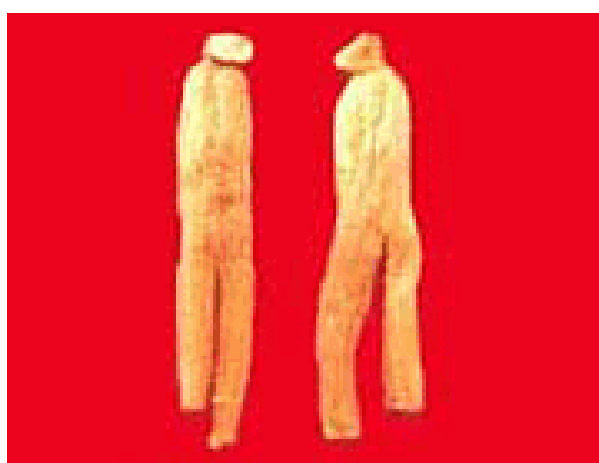
■ 수삼



수삼은 밭에서 채굴하여 가공하지 않은 인삼으로 70% 내외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모든 인삼류의 원료가 되는 것으로, 대개 **고년근은 5~6년, 저년근은 4년에 채굴수확** 한다.

수삼은 세월의 깊이와 경작인의 정성을 먹고 자란 영삼(靈蔘)이자 영초(靈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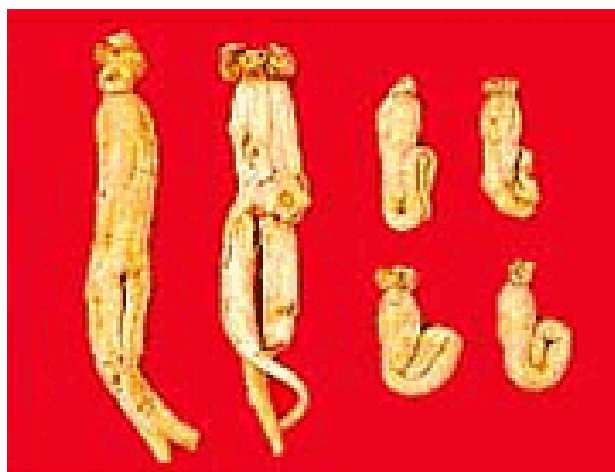
■ 홍삼



수삼을 장기간 저장할 목적으로 수증기로 찐 다음 익혀서 건조 시킨 담적 황갈색의 제품이다.

증삼,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수분함량이 14%이하가 되도록 가공하게 되는데 제조 과정중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이 촉진되어 담적갈색의 색상을 가지며, 매우 단단한 형태로 가공되어 원형 이 장기간 유지된다.

■ 백삼



4~6년근 수삼을 원료로 하여 껍질을 살짝 벗겨내거나 혹은 그대로 햇볕 건조하거나, 또는 60℃ 이하로 열풍건조시켜 열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 수분함량이 14%이하가 되도록 가공한 원형유지 인삼제품이다. 색깔은 미황백색을 띠며, 홍삼의 가공방법과는 달리 태양열에 의한 자연 건조 또는 열풍, 기타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백삼의 종류는 직삼, 곡삼, 반곡삼등으로 구분된다.

■ 태극삼



원형유지 가공인삼 제품으로 **홍삼과 백삼의 중간 제품**이라 말할수 있으며 직립 형태이다.

수삼을 90℃ 이상 열수처리 혹은 증삼하여 표피로부터 동체의 일부를 호화시켜 건조한 것이며 표피의 색상은 담황갈색을 띠고 절단했을때의 단면은 홍삼의 절단면 색상과 유사한 담갈색 환이 나타난다.

※ 각국 인삼의 특성

- **고려인삼** : 한국에서 생산된 인삼 (사람모양)
- **화기삼** : 미국, 캐나다에서 생산된 삼 (원주형)
- **삼칠삼** : 중국 운남성, 광서성 등 남부지방에서 생산된 삼 (소형 당근 모양)
- **죽절삼** : 일본에서 자생한 삼 (대나무 뿌리 모양)



수삼이란?

■ 수삼이란?

수삼은 건조 또는 가공하지 않은 날 것 상태의 인삼 생뿌리다. 대개 4년근에서 5년근 인삼이며 6년근은 대부분 홍삼 가공의 원료로 쓰인다. 인삼즙, 인삼주, 삼계탕, 기타 음식 등의 용도로 쉽게 이용되는 식용약재라고 할 수 있다.

수삼을 갈게(mix) 되면 거품이 생기는데 이는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Saponin)**이라는 물질 때문이다.

태극삼이나 홍삼보다 약리효과가 떨어지고 취급 및 보관이 어려워 건강개선의 목적으로 집중 이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수삼(인삼)은 토질과 기후 등 재배지의 조건에 따라 성분과 품질의 특이성을 갖는다.

진안산 수삼은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하여 가공삼(백삼, 태극삼, 홍삼 등)의 원료로서 적합하며 인삼 주성분인 사포닌의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취급단위는 채(750g)당 편급(片級, 750g당 뿌리 수)으로 한다.
- 연근(年根)은 재배 기간에 따라 3년, 4년, 5년, 6년근 등이 있다.
- 수삼은 용도에 따라 일반수삼, 삼계탕용, 미삼(尾蔘, 가늘고 긴 뿌리 부위) 등으로 구분한다.
- 수삼의 재래적 취급이나 이용, 소비 형태는 아직도 비합리적이고 체계가 미흡하여 인삼의 본질이 바로 인식되지 못하고, 중요한 건강자원이라는 것보다는 거래상품으로서의 기능이 많다.
- 시급한 인식 전환과 올바른 활용은 수삼보다는 홍삼이나 태극삼의 가치를 파악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홍삼이란?

홍삼이란?

고려홍삼은 장기간 보존 및 새로운 생리 활성 성분의 생성을 위해 원료수삼(原料水蔘)을 표피를 벗기지 않은 채로 세삼(洗蔘)후 증기로 찌고 건조, 숙성한 가공 인삼을 일컬으며, 담황갈색 또는 담적갈색의 색상을 띤다. 특히 홍삼의 약효가 탁월한 것은 가공 시 새로이 생성되거나 증가하는 **생리 활성 성분(진세노사이드, 폴리아세틸렌, 페놀 화합물, 폴리사카라이드 등)** 때문이다. 최근 현대의학적 연구 및 임상학적 검증으로 고려홍삼의 성분과 약리작용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

주요효능

고려홍삼은 외적 유해인자에 대한 비특이적인 생체 저항력을 증진시켜 주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외적 변화에 대해 생체를 정상화시켜 주는 이른바 아답토겐(Adaptogen) 효과가 있으며, 이는 홍삼이 **면역기능을 항진시키는 작용**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화학약품이 국소적으로 빠른 처치작용을 발휘하나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과는 달리 고려홍삼은 인체 전반에 복합적이며 근원적인 항진(抗進) 작용을 발휘하며, **장복하거나 다량으로 섭취해도 독성이 거의 없는 건강식품**이며 한방약 제이다.





용어설명(사포닌, 진세노사이드)

■ 사포닌 정의

- 라틴어의 Sapo(비누)에서 유래되어 물과 진탕하면 지속성의 거품을 내는 천연계면활성물질로서 주로 도라지, 칩, 인삼(홍삼)등의 뿌리식물에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성분.

☞ 개요 : 사포닌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트리테펜 및 스테로이드계의 배당체의 총칭이다. 사포닌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Sapo(비누)에서 유래.

■ 진세노사이드 정의

- 사포닌 중에도 인삼(홍삼)에 포함되어있는 사포닌이 구조가 특이하고 효능이 뛰어나 따로 분류되어 진세노사이드라고함.

☞ 홍삼제조 업체에서 진세노사이드함유량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 진세노사이드는 한가지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지금까지 밝혀진 진세노사이드는 무려 30가지 이상에 달하며, 현재도 새로운 성분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

☞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이름

진세노사이드Rb1, 진세노사이드Rb2, 진세노사이드Rc, 진세노사이드Rd, 진세노사이드Re, 진세노사이드Rg1, 진세노사이드Rg2, 진세노사이드Rg3, 진세노사이드Rh1, 진세노사이드Rh2, 진세노사이드Rf, 진세노사이드Ro.기타와 같이 붙음.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진세노사이드가 존재하고 각 진세노사이드마다 고유의 효능을 지니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체크되는 진세노사이드는 3가지이며, Rg1, Rb1, Rg3의 합 함량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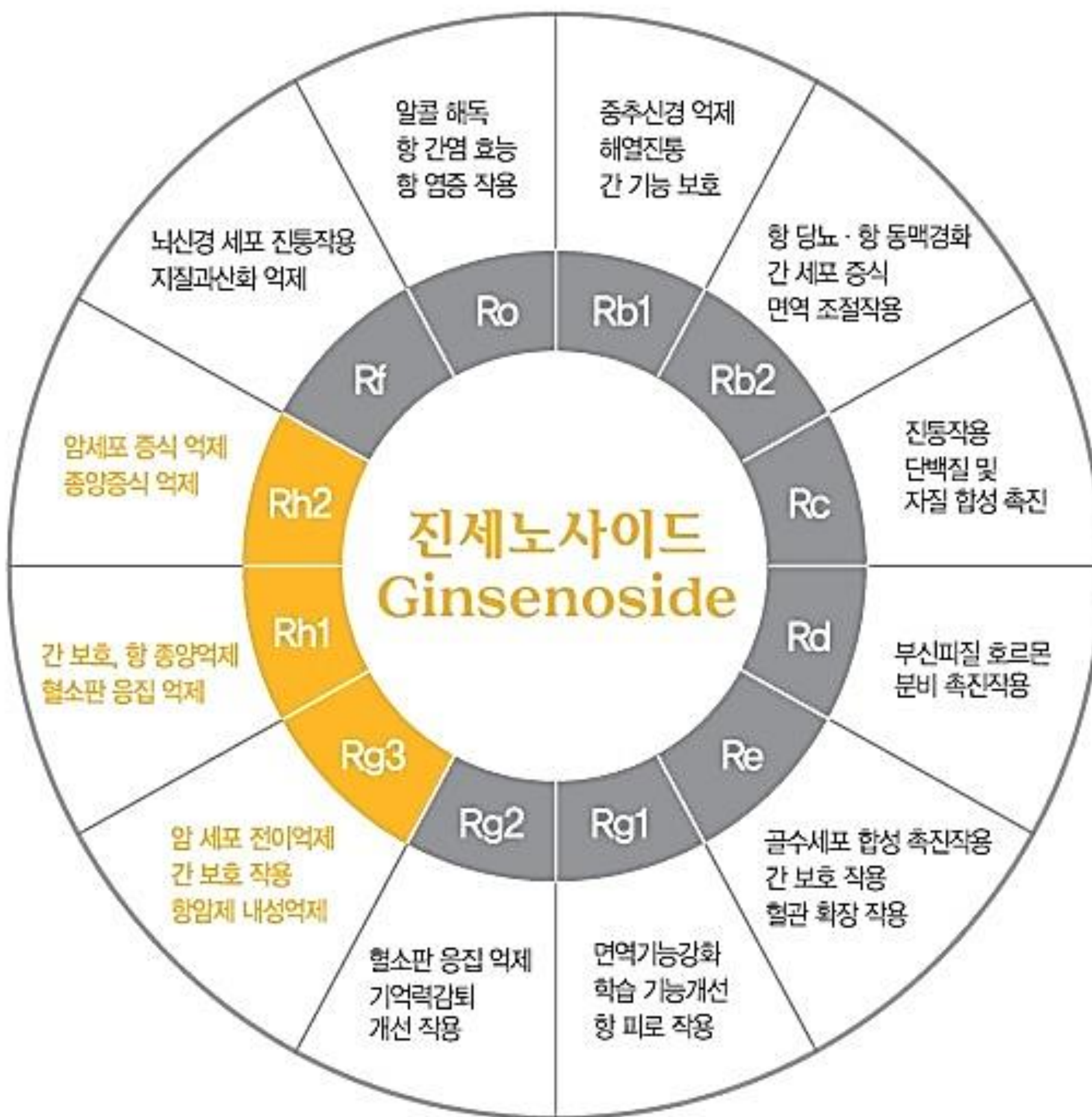
용어설명

■ 사포닌 효능

☞ 사포닌은 노화방지,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작용,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음.



진세노사이드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효능





사포닌 종류(1)

■ 농산물 사포닌 분류

▶ 인삼 사포닌

- 고대 중국의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서시를 보내 찾게 했었던 고려인삼.

면역력 증가와 고혈압?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고려 인삼의 다양한 효능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고려 인삼속에는 30여 종의 사포닌 성분 때문.

최근 **인삼 사포닌이 여성 갱년기 장애를 개선**하고, **남성 성기능을 돕는다는 사실이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지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인삼사포닌 성분은 크게 진정작용을 하는 파낙사디올계(PD)와 흥분작용을 하는 파낙사트리아올계(PT)로 나뉘는데 인삼은 화기삼이나 삼칠, 죽절삼 등의 외국삼보다 사포닌의 종류가 더 많을뿐만 아니라 PD계와 PT계의 구성이 균형 있는 비율을 보여 **혈압과 체온 등 몸의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

특히 생삼을 홍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성분의 변화를 일으켜 우리 몸에 유익한 몇 가지 새로운 사포닌이 더 생성되는데 **홍삼 사포닌 중 G-Rh2는 항암성이 있어 모든 암세포를 억제**하며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최강의 항암약품 CDDP를 사용할 때보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활력이 3배정도 많이 생긴다고 한다.

또한, 생리적으로 **해독작용**이 있으며 **항혈소판 작용 및 항산화 활성, 노화억제, 지방분해, 면역기능 증강의 효과**를 가지며 지금까지 G-Rh2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 두릅 사포닌

- 씹쌀한 맛을 내는 두릅은 인삼과 견줄만큼 많은 사포닌이 들어 있다.

두릅이 함유한 사포닌은 **혈당을 내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며,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백질과 비타민C가 많고 영양가도 높기 때문이다.

입맛을 돌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약효가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



사포닌 종류(2)

▶ 콩 사포닌 (다이어트에 활용)

- 콩이 함유한 사포닌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맑게 하기 때문에 발암을 억제하며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켜 동맥경화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도라지 사포닌 (감기예방)

- 삼과 생김새가 비슷한 도라지, 더덕도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도라지, 더덕의 사포닌은 한의약에서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삭이는 약효**로 감기와 천식 완화와 항염 작용으로 여드름 치료한약제로 알려져 있다. 도라지는 맛이 쓰고 성질은 약간 따듯하며 독이 없다. 도라지는 폐기(肺氣)를 맑게 하고 인후(咽喉)에 이로우며 가슴이 답답한 것을 풀어 준다. 그리고 **농혈을 제거하며 한열을 없애고 기혈을 보강**한다. 또한 폐병 해수의 보조식품이다. 도라지를 약한 불에 달여 수시로 마시면 감기예방에 도움이 된다. 예로부터 '일(一) 인삼, 이(二) 더덕, 삼(三) 도라지'라는 말이 있듯이 더덕과 도라지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약효가 인삼과 비슷하다. 특유의 쌉싸름한 향을 내는 사포닌 성분이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삭이기** 때문에 기관지염은 물론 편도선염, 인후염 등에 약으로 쓰이는 생활 속의 건강 지킴이로 자리잡고 있다.

▶ 청국장 사포닌

- 자연식품을 즐겨 먹는 사람 중에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진 경우가 많다. 자연식품 중에서도 특히 청국장에는 레시틴과 사포닌이란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과다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성분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기를 많이 먹고 난 후 청국장찌개를 먹으면 느끼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는데, 이 역시 콩 속의 레시틴과 사포닌 성분 때문이다. 청국장 발효균과 섬유질은 장을 튼튼하게 해주어 **변비를 해소**시켜 준다. 또한 청국장은 숙취를 해소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등 **해독작용도 탁월**하다. 장의 기능은 몸의 다른 모든 기능의 뿌리가 된다. 청국장의 이런 효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만과 성인병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다.



홍삼 사용 방법(1)

▷ 씹어서 섭취하실 때



홍삼의 다양한 성분을 온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화능력이 양호하신 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주로 홍콩, 대만, 중국 등 중화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섭취방법

홍삼 뿌리를 증기로 가습하거나, 전기토스트기로 약 1-3분 내외 가열하여 말랑말랑하게 연화시킨 후 얇게 썰어 씹어먹습니다.

보관하며 드실 경우 수분을 충분히 건조한 후 밀봉하여 사용하십시오. 토스터기로 너무 오래 가열하면 홍삼이 탄화 되므로 주의하세요.

섭취량

하루 2-3회, 1회 3-4g(2~3편) 정도를 식간에 섭취하십시오.

주의사항

홍삼은 매우 견고하오니 입에서 충분히 불린 후 씹어드십시오.

치아 및 구강 손상에 주의하십시오. 열수에 담가 연화 시킨후 드셔도 됩니다.

▷ 분말로 섭취하실 때

건강식품 용도 외 첨가 및 토핑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물에 타서 음용합니다.

(가루를 그냥 드실때는 사례가 들릴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환(丸)으로 빚어 섭취합니다.

(양질의 홍삼분말은 물만으로도 환을 빚을 수 있습니다. 꿀, 설탕류 등과 함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홍삼가루를 꿀에 절이실 때는 홍삼가루의 부피가 늘어나므로 용기를 넉넉한 것으로 준비하세요.)

3. 각종 건강식, 영양죽, 육류 등에 첨가하여 섭취합니다.

(홍삼추출물은 약미가 강하여 식품재료와 어울리기 부담스러우나 홍삼분말은 쓴맛이상 대적으로 약하고 고유의 부드러운 향이 있어 육류, 어류 조리시 비릿내를 잡아주고 맛과 향취를 풍성하게 하며 영양학적으로도 좋습니다. 지금은 커피의 토핑재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섭취방법

하루 2-3회, 1회 2-3g 정도를 식간에 섭취하십시오. 다양한 식재료에 조미료로 사용하여 음식궁합을 높이세요.

주의사항

홍삼은 매우 단단하므로 가정용 믹서기나 분쇄용구로 분쇄하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 분쇄가 가능한 제분소를 찾아 이용하십시오. 홍삼분말은 흡습하여 눅눅해지고 정도가 심하면 곰팡이가 필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밀폐용기에 담아 사용하십시오.





홍삼 사용 방법(2)

▷ 달여서 섭취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사용방법으로 소화 흡수가 빠르고 음용이 편리합니다.

방법

- 홍삼과 물의 비율(질량 기준) → 홍삼:물=1:20
- 1회 90ml, 2회 음용기준으로 한다면 성인 한달 홍삼 추출액 음용량은 5,400ml가 됩니다.
- 홍삼 슬러지 잔존량, 증발량 등을 감안하면 통상 300g을 달이는데 물 6,000ml 정도가 필요합니다.
- 용기: 웅기, 스텐레스, 유리 등 (철(Fe)이 많이 함유된 재질은 피하세요. 일부 성분(항산화 성분)이 철과 반응하여 손실됩니다.)
- 달이는 조건: 고열로 장시간 달일시 유효성분의 손실과 휘발이 발생 하오니 가급적 저온으로 달이십시오.
- 1차 추출물과 2차 추출물을 따로 달여내 혼합하여 드시는게 이상적이나, 복잡하시다면 80°C정도로 24~48시간 달여 음용하십시오.
(홍삼 전용 제탕기 기준)

섭취방법

하루 2-3회, 1회 90ml 정도를 식간에 섭취하십시오.(15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량의 절반 음용) 노약자는 가급적 따뜻하게 데워 섭취하십시오.

주의사항

센불로 달일시 사포닌 성분으로 끓어 넘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특히 홍미삼류)

추출액은 냉장고에서도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파우치 팩 포장 처리가 안된 추출액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십시오.

개봉 사용후 남은 홍삼은 밀봉하시어 충류, 습기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 하십시오.





홍삼의 분류(1)

▷ 홍삼의 분류

- 년근별 : 6년, 5년, 4년, 미표시

절편홍삼,홍미삼류,분쇄홍삼처럼 뇌두가 붙어있지 않는 제품류는 년근을 표시할 수 없어 미표시라 표기함.

- 형태별 : 직삼, 기타형태홍삼(절삼,절편,홍미삼,분쇄홍삼 등)



직삼
뇌두에서 주근(主根),
지근까지 형태 유지



절삼
형태가 직삼에 못미치는
홍삼을 2-3등분 절단한 형태



절편
일정 두께로 빗썰어
단면이 충실한 것만 선별



홍미삼
주근(主根)에서 잘라낸 잔뿌리로
굵기에 따라 홍대미,홍중미,
홍세미로 세분

▷ 품위별 분류(등급별 분류)

- 홍삼(직삼)은 인삼산업법 검사규정에 의거 품질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체형,색택,표피 등 외형적 기준과 내부 조직의 치밀,견고성 등을 종합하여 1등(천삼),2등(지삼),3등(양삼) 등급을 결정합니다.

천삼



지삼



양삼





홍삼의 분류(2)

▷ 지별분류(크기 별 분류)

- 10지, 15지, 20지, 30지, 40지, 50지, 60지, 70지, 소지

홍삼 지별 숫자는 포장되어 있는 홍삼 개체 숫자가 아닙니다. 홍삼 개체의 크기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뿌리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포장구분 \ 지별	10지	15지	20지	30지	40지	50지	60지	70지	소지
600g(16兩)	14	19	28	38	48	58	68	78	79~100
300g(8兩)	7	10	14	19	24	29	35	39	40~50
150g(4兩)			7	10	12	15	17	20	21~25
75g(2兩)				5	6	7	8	10	11~13
37.5g(1兩)					3	4			

▷ 포장별 분류(예시)

- 송화수 홍삼은 국가지정 검사기관 검사를 필한 제품입니다.



600g, 300g, 150g, 75g, 37.5g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캔포장이더라도 내부의 내용은 다릅니다.
라벨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사진설명] 2009년 (가을)에 채굴하고 삼신인삼 (현 송화수홍삼 영농조합 /대표:송화수)에서 제조하여 2010년 7월 농협인삼검사소(검사자: 김OO)에서 검사한 6년근 600g 천삼 20지(28뿌리) 홍삼으로 품질보증기간은 2020.7.14.일까지란 내용입니다.



Q&A

Q. 인삼밭에는 왜 까만 가림막이 있는 건가요?

A. 인삼은 땅뿐 아니라 재배 환경에서도 민감하다. 반음지성 식물이라 해가림 밑에서 재배해야하고 습도 또한 너무 마른 것과 습한 것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어 조절을 잘 해야 한다. 생육 초기의 5~6월에는 건조피해, 7~8월 장마철에는 과습 피해를 받기 쉽다. 이러한 까다로움 때문에 이식 후 수확기까지 3~5년 동안 재배 조건을 잘 맞춰야한다. 기르는 사람의 정성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작물이다.



Q. 고려인삼은 무엇 때문에 유명한가요?

A. JINSENG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것은 고려인삼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인삼은 2000년 전부터 이미 대표적인 상품이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삼재배에 가장 적합한 기후와 토질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삼 경작 기술과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인삼이 세계 최고의 품질인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Q&A

Q. 미국삼, 시베리아삼, 브라질삼은 다른 종류인가요?

A. 고려인삼은 학명이 *Panax ginseng* 이다. 미국과 캐나다에 인삼과 비슷한 미국삼 즉 서양삼 또는 화기삼(*Panax quinquefolius*)이라는 식물이 있다. 고려인삼과 같은 *Panax*속 식물이지만 인삼과는 다른 종으로 해외에서 인삼을 대신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삼을 인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시베리아삼(*Siberian Ginseng*)은 인삼과는 거리가 먼 오갈피나무의 뿌리다. 브라질삼, 태국삼 등도 모두 인삼과 거리가 먼 식물이다. 인삼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그 명성을 차용하려고 하는 것들이다.



Q. 인삼은 한번 재배한 땅에서는 다시 못 자라는 게 사실인가요?

A. 인삼은 땅을 가리는 성질 때문에 연작을 하면 제대로 크지 못한다. 대표적인 ‘기지(忌地)’ 식물로 한 번 인삼을 심은 땅에는 10년이 지나도 다시 재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장기간 기지가 필요한 이유는 토양 속의 병원균 때문이다. 인삼은 한 번 심으면 이동 없이 한 곳에서 4~6년 생장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인삼뿌리에 치명적인 병원균이 증식해 토양 속에 잠복한다. 여기에 다시 인삼을 재배하면 잠복한 병원균 때문에 뿌리썩음병이 발생한다. 이러한 연유로 보통은 토양 내 병원균의 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처녀지를 찾아 인삼밭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배기술의 발전과 병원균 방제법의 개발 등으로 땅을 가리는 기간이 점차 줄고 있다.

MEMO

MEMO